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

오 지 훈

(구립은하어린이집)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6세 유아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어머니와 이들의 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 문화적응은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자녀의 사회능력은 담임교사의 평정을 통해,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은 개인 언어능력검사의 실시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54쌍의 어머니(평균연령 33.46세, SD=5.26세)와 자녀(남아 27명, 여아 27명, 평균월령 52.54개월, SD=12.89개월)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주요 연구문제 검토에 앞서 먼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사회능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현언어능력에서는 동일 연령군 유아들과 비교해 현저한 지체가 관찰되었다. 반면 수용언어능력과 사회능력에서는 현저한 지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목표인 어머니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유아 월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변인들 간 관계를 산출하는 편상관분석과 유아 능력 변인 각각에 대해 유아 월령을 제1단계에 투입하고 각 문화적응 차원 점수를 제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 수준이, 그리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주도성과 사교성 사회능력 차원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과 동화 문화적응 수준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및 사회 능력 발달에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통합이나 동화로의 문화적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 유아 언어능력, 유아 사회능력

* 연구는 2017년도 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김현수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Tel : 02-2220-2638 / E-mail : khs1004@hanyang.ac.kr

I. 서론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유입으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2016년도 기준 국내 전체 혼인(28만 1천 6백 건) 중 외국인과의 혼인(2만 6백 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3%에 이르며 이 중 72.0%가 어머니 국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어머니 출신국으로는 베트남(36.3%), 중국(28.3%), 필리핀(5.8%), 일본(5.7%),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7).

한편 혼인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데, 연령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을 살펴보면 만 5세 이하가 49%로 타 연령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변동 추세도 만 5세 이하 연령군에서 타 연령군에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이처럼 높은 비율과 빠른 증가 추세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의 적응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래의 사회 문제 감소와 인적 자원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 가정 유아들보다 여러 기능 영역에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언어능력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황상심(2008)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30%가 언어 발달에서 지체/장애 수준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은희(2004)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68%가 표현

언어능력에서의 지체 가능성을 보인다고 주장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에서의 문제가 표현언어능력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언어능력 발달뿐 아니라 사회능력 발달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 가정 유아들보다 혼자놀이 경향이 더 높았고(박미경, 2007),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또래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위축, 소극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었다(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2009). 또한 친사회적 리더십에서도 일반가정 유아와 비교되는 상대적 약점이 보고되고 있는데, 정예리와 이숙희(2010)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친사회적 리더십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이다' 이상의 교사 평정을 받고 있지만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그 수준은 더 낮음을 발견하였다.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에서 상대적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낮은 언어 및 사회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이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마련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가와 연구자들은 유아의 언어 및 사회능력 발달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어머니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Vygotsky는 자신의 사회문화발달 이론에서 유아 언어발달의 도움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어머니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비계(scaffold)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Van der Veer & Valsiner, 1991). 유사하게, Hart와 Risley(1995)도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아기는 언어의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어머니

로부터의 모델링과 어머니로부터 제공된 언어 자극, 그리고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강화가 유아 언어능력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어머니의 언어 환경의 제공 정도가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가 유아와 언어적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그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아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적 성취를 보였으며 (Ackerman-Ross & Khanna, 1989; Furrow, Nelson, & Benedict, 1979; McCartney, 1984), 성인과의 일대일 언어적 자극의 양과 질은 영아 음성화수와 언어수행 능력과 정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ldwin, 2000). 또한 발화수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사용 어휘의 수와 다양성에서 더 우수했으며, 이러한 어머니 특징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이혜련, 이귀옥, 2005; 장유경, 이근영, 박금주, 성현란, 2003; Weizman & Snow, 2001).

유아의 사회능력 발달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 사회능력 발달은 자신이 속한 즉각적 환경 내 성인(유아의 경우 부모)의 도움으로 촉진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 교수, 모델링은 유아기 사회적 관계에서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양육, 교수, 모델링은 유아의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연민아, 2012; 임진숙, 2008; Thompson & Meyer, 2007). 유아기의 사회능력의 부족은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의 사회 부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Pettit, Dodge, &

Brown, 1988), 유아기 아동의 사회능력 발달을 촉진시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처럼 유아의 언어, 사회 능력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어머니는 일반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유아 자녀의 언어·사회 능력 발달의 자극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 문화 및 사람에 덜 개방적인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는 일반 가정 어머니와는 달리 이주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별도의 과업을 지니고 있다 (김현경, 2009). 이 과정은 흔히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여 통합이나 차별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Berry(1994, 1997, 2001)는 문화적응이 모국의 문화와 정착하는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가치를 선택해 나가고 문화 간 통합과 차별을 이루어가는 역동적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이 개념에 기반하여 Berry(1994, 1997, 2001)는 문화적응 전략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통합(integration)은 모국문화와 정착문화 모두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문화적응 전략으로 이 전략 하의 개인은 두 문화의 문화 및 언어를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동화(assimilation) 전략에서 개인은 모국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착문화에 흡수되고자 한다. 분리(separation)는 동화와 정반대의 문화적응 전략으로, 분리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개인은 모국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착문화에의 관여나 접촉은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는 개인이 모국문화와 정착문화 모두와 접촉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Berry(1994, 1997, 2001)는 개인이 이들 문화적응 전략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들은 일반 가정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및 사람과의 접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앞서 소개한 유아자녀 언어능력과 사회능력에 대한 어머니 영향을 고려할 때(이혜련, 이귀옥, 2005; 장유경 등, 2003; Ackerman-Ross & Khanna, 1989; Furrow et al., 1979; McCartney, 1984; Thompson & Meyer, 2007; Weizman & Snow, 2001), 다문화가정 유아가 일반가정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을 보일 것이란 예측을 만들어 낸다. 한편,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 상태와 유아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 간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한국어 구사를 더 잘하고 한국문화와 사람에 접근하는 문화적응 특성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들의 유아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사회 능력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다문화가정 이민자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자녀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나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같은 어머니 특성이 유아자녀의 한국어능력과 정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정민자와 윤선아(2014)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이민자 어머니의 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 학습 환경 제공 정도, 부부간 친밀도가 각각 유아자녀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국적,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습득기간, 주 사용언어, 직업과 같은 다른 다문화 가정 어머니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비율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과 이강이(2009)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과 이들 가정 유아의 한국어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과 의 관계를 검토했는데, 결과 어머니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 표현언어능력은 유아자녀의 표현언어능력보다 수용언어능력과 더 큰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한국어 수용언어능력은 유아자녀의 수용언어능력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우현경 등, 2009). 이들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언어 자극이 유아자녀 언어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수용언어능력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능력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과 유아자녀의 사회능력 간 관계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이주민 어머니의 양육과 모델링은 유아의 사회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연민아, 2012; 임진숙, 2008; Thompson & Meyer, 2007).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반응적 양육(responsive parenting)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vidov & Grusec, 2006; Thompson & Meyer, 2007). 통합이나 동화 문화적응 상태의

어머니는 분리나 주변화 적응 상태의 어머니보다 한국어 소통 가능성이 높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이들의 문화적 이슈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더 유능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관찰한 것에 기반하여 자녀와 더 빈번히 소통하고 반응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머니 특성은 유아의 사회능력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비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과 유아자녀의 사회능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았지만, 박종인(2010)은 문화적응의 한 특징에 속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자녀의 사회능력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유아자녀의 긍정-친사회적 또래관계 행동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김선희(2013)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이 높을수록 교사가 평정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유능성(친사회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김선희(2013)의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으로 영향 받은 유아 언어 능력이 유아 자신의 사회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간접 경로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이민자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과 이들 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 간 관계를 조명하는 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각된 문화 격차의 정도 혹은 이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탐색하거나 혹은 이들 요인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간 관계를 탐색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김현경, 2009). 보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이 유아자녀의 탄력성 및 유아 교육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기도 했지만(이한솔, 2011), 자녀에의 결과 변인으로 언어능력 혹은 사회능력에 집중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예, 한국어 능력, 한국친구관계) 각각에 집중하여 이들이 유아자녀의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과 맺는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박종인, 2010; 우현경 등, 2009; 정민자, 윤선아, 2014), 이들 변인들을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이들의 유아 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 간 관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유아 수,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목적의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임상적, 교육적 함의가 크다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국가 지원책 혹은 복지책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 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유용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문

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사회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모국어, 주모국어와 한국어, 모국어와 제스처 순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참가 어머니의 자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세~6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어머니들과 그 유아자녀들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원 중인 유아교육기관들을 표집한 후 이 기관들에 연구 참가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 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63 가정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고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 어머니 자료와 자녀 자료가 모두 수합되지 않은 경우(2명 유아)와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7명 유아)의 9개 경우를 제외한 총 54개 어머니-자녀 자료 쌍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 참가 유아는 남아 27명, 여아 27명이었으며, 만 3세는 20명, 만 4세는 19명, 만 5세는 14명, 만 6세는 1명으로 참가 유아의 평균 월령은 52.54개월($SD=12.89$)이었다.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46세($SD=5.26$)였으며, 출신국은 중국 14명(25.9%), 베트남 10명(18.5%), 일본 8명(14.8%), 필리핀 7명(13%)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 참가 어머니들의 한국거주 기간의 평균은 6.98년($SD=3.41$)이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한국어가 44.4%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다음으로 주한국어와

Table 1. Maternal Demographics (N=54)

| | Frequency | (%) |
|----------------------------|-----------|--------|
| Education | | |
| 9th years | 1 | (1.9) |
| 12th years | 28 | (51.9) |
| some college | 9 | (16.7) |
| college graduate | 11 | (20.4) |
| beyond college | 5 | (9.3) |
| Employment | | |
| not employed | 28 | (51.9) |
| employed | 26 | (48.1) |
| Country of Origin | | |
| China | 14 | (25.9) |
| Vietnam | 10 | (18.5) |
| Japan | 8 | (14.8) |
| Philippine | 7 | (13.0) |
| Uzbekistan | 4 | (7.4) |
| Mongolia | 3 | (5.6) |
| Taiwan | 2 | (3.7) |
| Russia | 2 | (3.7) |
| Thailand | 1 | (1.9) |
| USA | 1 | (1.9) |
| Cambodia | 1 | (1.9) |
| Canada | 1 | (1.9) |
| Language with Child | | |
| Korean Only | 24 | (44.4) |
| Mainly Korean+Mother Lang. | 16 | (29.6) |
| Mainly Mother Lang.+Korean | 13 | (24.1) |
| Mother Lang.+Gesture | 1 | (1.9) |
| | Mean | (SD) |
| Age | 33.46 | (5.26) |
| Years in Korea | 6.98 | (3.41) |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정도, 연령, 고용여부, 출신국, 한국체류기간,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단)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도구

1) 기초정보질문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이들의 유아 자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8문항으로 구성된 기초정보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유아자녀의 성별과 월령을 묻는 2개의 문항과 어머니의 학력, 연령, 직업, 원국적, 한국체류기간, 가정내 자녀와의 의사소통수단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어머니 문화적응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Berry(1994, 1997)의 문화적응 개념에 입각하여 Barry(2001)가 개발한 문화적응척도(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5문항), 동화(6문항), 분리(4문항), 주변화(8문항)의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은 모국의문화(언어 포함)와 정체성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 모두를 균형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에 친숙한 것을 의미하며(예, '나는 한국 친구들도 있고 모국 친구들도 있다,' '나는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로 농담을 할 수 있다'), 동화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보다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친숙하여 한국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모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나는 한국 사람이 모국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분리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지향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적응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예, '나는 대체로 모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 '나와 가까운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모국 출신의 사람이다'), 주변화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 및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 모두에 동화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한국 사람이나 모국 사람들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가끔 한국 사람이나 모국 사람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의 α 로 측정된 내적합치도는 통합 .72, 동화 .87, 분리 .81, 주변화 .83이었다.

3) 유아 표현언어능력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언어능력은 보스턴 이름대기검사(Kaplan, Goodglass, & Weintraub, 1983)의 아동용 한국판(Korean versio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 K-BNT-C)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김향희, 2007a). K-BNT-C는 만 3세~14세 아동의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K-BNT-C는 표준 검사로서, 연령 기준은 6개월 간격으로 제시되어 있다. 검사는 유아에게 각 그림을 보여주고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세 문항 연속 오답 반응을 보일 경우 검사를 중지한다. 원점수를 통해 백분위 점수와 등가연령이 산출된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 모두를 사용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기준(동일연령군 유아) 대비 표현언어능력에서의 상대적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백분위 점수를, 어머니 문화적응 수준과 유아 표현언어능력 간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어머니 문화적응과의 관계 파악 시에는 유아 월령 증가에 따라 원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여(연령이 증가하면 더 많은 문항을 맞추기 때문에 더 높은 원점수를 받게 됨) 유아 월령을 제어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K-BNT-C 원점수와 어머니 문화적응 변인 점수 간 상관을 살피는 편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K-BNT-C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 연구를 통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향희, 2007a, 2007b). 본 연구에서의 K-BNT-C의 실시와 채점은 사전훈련을 받은 유아교육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사는 참가 유아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4) 유아 수용언어능력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은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2004)의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만 4세~9세 아동의 구문 의미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문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판별이나 구문 의미 이해에서의 강·약점 파악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검사를 위해, 검사자는 피검 아동에게 문장을 읽어주고 문장 내용에 적합한 그림을 주어진 세 개의 그림 중에서 찾도록 지시한다. 세 개 연속 오답 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를 중지한다. 원점수를 통해 백분위 점수와 등가연령이 산출되는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표준(동일연령군 유아) 대비 수용언어능력에서의 상대적 위치 파악을 위해 백분위 점수를,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수용언어능력 도구의 기준이 만 4세부터 구비되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3세 아동에 대한 수용언어능력 백분위 점수를 산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만 4세 미만 유아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34개 유아 자료에 대해서만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유아 수용언어능력 특성 파악에 이용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의 수용언어능력 간 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가용한 자료의 최대 활용이 통계적 검증력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원점수를 사용하여 54개 유아 자료 모두가 관계성 분석에 포함될 수 있게 안배하였다. 단 유아 월령 증가에 따른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원점수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연령이 증가하면 더 많은 문항을 맞추기 때문에 더 높은 원점수를 받게 됨) 유아 월령을 제어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원점수와 어머니 문화적응 변인 점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편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유아 표현언어능력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훈련을 받은 유아교육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실시, 채점되었다. 검사는 참가 유아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5) 유아 사회능력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능력은 우수경(2002)이 개발한 교사평정 유아 사회능력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의 교사평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성(9문항), 협조성(9문항), 사교성(5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도성은 유아가 놀이를 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고, 협조성

은 다른 유아들과 상호작용 중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협조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거나 잘 사귀는 정도를 나타낸다. 원 도구는 6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평정의 편의를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요구되었다. 협조성 차원에 속하는 문항들 중 4개 문항은 역채점 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주도성 .90, 협조성 .87, 사교성 .82였다.

3.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21곳과 유치원 3곳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연구 참가 공고를 내었다. 공고에 응답한 어머니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가에 동의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유아 자녀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적응 측정을 위해 다문화 결혼 이민자 어머니로 하여금 문화적응 질문지 문항들에 직접 평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질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한 언어의 문화적응척도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문항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은 K-BNT-C와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의 실시와 채점에 관해 사전 훈련을 받은 유아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화된 방식으로의 검사 시행을 위해 훈련 과정에서 모의

시행이 녹화되었으며 녹화자료는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되었다. 검사지의 작성 및 채점의 정확성도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적어도 2회의 모의검사를 실시한 후 실제 검사에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 능력은 유아 담임교사로 하여금 유아 사회능력 질문지 항목들에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어머니들에게는 연구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를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파악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능력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K-BNT-C와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의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연구문제 중 하나인 어머니 문화적응 수준과 유아의 언어능력 간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K-BNT-C와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의 원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유아 사회능력 관련한 자료의 분석은 문항평균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이들 가정 유아의 언어 및 사회 능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편상관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의

사회능력의 변화를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백경숙, 1996; 이지민, 김현수, 2015), 그리고 규준이 있는 언어능력 검사들의 원점수를 사용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zero-order 상관 계수가 아닌 유아 월령을 제어변인으로 투입한 상태에서 변인들 간 관계를 나타내는 편상 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 월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점수들이 유아 언어·사회 능력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 월령을 제1단계에,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 점수를 제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erry(1994, 1997, 2001)는 원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이주하는 개인의 경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들 중 하나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통합전략을 취하는 경우 동화나 분리, 주변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화적응 차원들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네 개 문화적응 차원 모두를 동시에 투입하는 전략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현상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회귀식에 문화적응 변인을 각각 하나씩만 투입하는 분석 전략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유아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의 기술통계적 특성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 간 관계 탐색에 앞서 연구 참가 어머니들의 문화적응 특성과 연구 참가 유아들의 언어·사회 능력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차원 및 유아의 사회능력 차원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치들이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유아 표현언어능력의 측정을 위한 K-BNT-C에서의 유아 수행 백분위들과 유아 수용언어능력의 측정을 위한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에서의 유아 수행 백분위들의 빈도분석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cores of maternal accultur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bilities (N=54)

| Variables | | # of Items | Minimum | Maximum | Item M (SD) |
|---------------------------|-----------------|------------|---------|---------|-------------|
| Maternal Acculturation | Integration | 5 | 1.60 | 4.60 | 3.28 (.71) |
| | Assimilation | 6 | 1.00 | 4.33 | 2.67 (.77) |
| | Separation | 4 | 2.00 | 5.00 | 3.38 (.78) |
| | Marginalization | 8 | 1.00 | 4.13 | 2.48 (.69) |
| Child Social Abilities | Leadership | 9 | 1.22 | 4.89 | 3.13 (.70) |
| | Cooperativeness | 9 | 1.56 | 5.00 | 3.19 (.72) |
| | Sociability | 5 | 1.40 | 5.00 | 3.11 (.66) |

Table 3.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preschool children's percentile scores on the Boston Naming Test (N=54) and on the Sentence Comprehension Test (N=34)

|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Korean-Version Boston Naming Test) | | | |
|--|-------|-------|--------|
| % ^{tile} score | Freq. | % | Cum. % |
| 0 th | 30 | 55.6 | 55.6 |
| 1 st -5 th | 11 | 20.3 | 75.9 |
| 6 th -10 th | 2 | 3.7 | 79.6 |
| 11 st -15 th | 6 | 11.4 | 90.7 |
| 16 th -20 th | 2 | 3.7 | 94.4 |
| 21 st -25 th | 0 | 0 | 94.4 |
| 26 th -30 th | 0 | 0 | 94.4 |
| 31 st -35 th | 2 | 3.7 | 98.1 |
| 57 th | 1 | 1.9 | 100.0 |
| Total | 54 | 100.0 | 100.0 |
|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Sentence Comprehension Test) | | | |
| % ^{tile} score | Freq. | % | Cum. % |
| 0 th | 2 | 5.9 | 5.9 |
| 1 st -10 th | 9 | 26.5 | 32.4 |
| 11 th -20 th | 5 | 14.7 | 47.1 |
| 21 th -30 th | 0 | 0.0 | 47.1 |
| 31 th -40 th | 3 | 8.8 | 55.9 |
| 41 th -50 th | 3 | 8.8 | 64.7 |
| 51 th -60 th | 2 | 5.9 | 70.6 |
| 61 th -70 th | 4 | 11.8 | 82.4 |
| 71 th -80 th | 2 | 5.8 | 88.2 |
| 81 th -90 th | 2 | 5.9 | 94.1 |
| 91 th -100 th | 2 | 5.9 | 100.0 |
| Total | 34 | 100.0 | 100.0 |

Freq. = Frequency; Cum. = Cumulative.

먼저 문화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참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분리와 통합 척도에서 각각 문항평균 3.38과 3.28로 평균 ‘보통이다(=3점)’ 수준 이상의 분리와 통합 문화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주변화와 동화 척도에서는 문항평균이 각각 2.48, 2.67로, 평균적으로 ‘별로 아니다(=2점)’ 보다는 높은 그러나 ‘보통이다(=3점)’ 보다는 낮은 수준의 주변화와 동화 문화적응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K-BNT-C로 측정된 참가 유아들의 표현언어능력 수준은, Table 3에도 보이는 바와 같이, 한 사례(백분위 57th)를 제외하곤 모두 백분위 35th이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8.1%에 해당). K-BNT-C는 기준점사이기 때문에 연령에 기반한 기준 집단(일반유아)과의 비교가 가능한데, 백분위 50th는 아동이 속한 연령 기준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수행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경우, 백분위 5th 이하에 속하는 사례가 41개 사례로, 전체 참가 유아 57명 중 75.9%에 해당하는 41명의 표현언어능력점수가 연령 기준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하위 5%에 위치해 있었다. 다문화가정 참가 유아들의 표현언어능력의 백분위 평균은 4.91th(SD=10.36)이었다.

한편, 한국어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로 측정된 참가 유아들의 수용언어능력은 표현언어능력에 비해 더 넓은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see Table 3). 유아들의 수용언어능력의 백분위 점수는 0th~96th 범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skewness=.39), 백분위 평균은 36.26th(SD=32.55)이었다. 한국어로 제시된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에서 1표준편차 이하의 수

행 수준을 보이는 유아라 말할 수 있는 백분위 16th 이하에 위치한 유아 수는 13명(전체 참가 유아의 38.2%에 해당)이었다. 백분위 50th 이하에 위치한 유아 수는 22명(전체 참가 유아의 64.7%에 해당)이었고, 나머지는 백분위 50th 이상의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참가 유아들의 사회 능력은, Table 2에 제시된 바대로,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차원의 문항 평균이 각각 3.13, 3.19, 3.11로 문항들에 평균 ‘보통이다(=3점)’ 이상의 교사 평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이 연구의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 자녀의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능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 월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인 간 관

계를 보여주는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의 지표로 원점수를 사용하였고 원점수가 월령 증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편상관분석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조명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표본 크기가 작은 관계로 본 연구는 상관분석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을 .10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과 유아의 표현 및 수용 언어능력과 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 표현언어능력에서는 네 개의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 중 어느 차원도 유아의 표현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유아 수용언어능력에서는 네 개의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 중 통합만이 유아 수용언어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25, p<.10$). 이는 모국과 한국 문화(언어 포함) 모두를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유아

Table 4.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matrices among four maternal acculturation dimensions and preschooler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after controlling preschooler age (N=54)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Integration | - | | | | | | | | |
| 2= Assimilation | .58*** | - | | | | | | | |
| 3= Separation | -.18 | -.35** | - | | | | | | |
| 4= Marginalization | -.05 | .30** | .08 | - | | | | | |
| 5= Expressive Lang. | -.05 | -.03 | .16 | -.01 | - | | | | |
| 6= Receptive Lang. | .25* | .11 | .08 | -.16 | .36*** | - | | | |
| 7= Leadership | .23* | .23* | .09 | .05 | -.04 | .51** | - | | |
| 8= Cooperativeness | -.02 | .12 | -.13 | -.17 | .18 | .25* | .23* | - | |
| 9= Sociability | .34** | .33** | -.16 | .01 | -.06 | .37*** | .69*** | .57*** | - |

Preschooler age=months old; Lang.=Language; raw scores were used for preschoolers' expressive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 $p<.10$, ** $p<.05$, *** $p<.01$ (all two-tailed).

자녀들에서 수용 정도가 낮은 어머니의 유아 자녀들에서보다 더 높은 수용언어능력이 관찰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이들 가정 유아자녀의 표현 및 수용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 월령을 제 1단계에,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 점수를 제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문화적응 차원들 간 낮은 양립 가능성을 고려해(Berry, 1994, 1997, 2001) 연구는 각 회귀식에 하나의 문화적응차원만을 포함시키는 분석방식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표본 크기가 작은 관계로 회귀분석에서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도 .10으로 설정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유아의 월령은 유아의 표

Table 5. Summary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effects of child age and maternal acculturation on preschooler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 Criterion | Child Language Abilities | | | | | | Child Social Abilities | | | | | | | | |
|----------------------------|--------------------------|--------|-----------------|-----------|--------|-----------------|------------------------|--------|-----------------|-----------------|--------|-----------------|-------------|--------|-----------------|
| | Expressive | | | Receptive | | | Leadership | | | Cooperativeness | | | Sociability | | |
| Predictor | Step1β | Step2β | ΔR ² | Step1β | Step2β | ΔR ² | Step1β | Step2β | ΔR ² | Step1β | Step2β | ΔR ² | Step1β | Step2β | ΔR ² |
| Step1 | | | | | | | | | | | | | | | |
| Child Age | .62*** | .62*** | .38*** | .51*** | .51*** | .26*** | .04 | .04 | .00 | -.03 | -.03 | .00 | .00 | .01 | .00 |
| Step2 | | | | | | | | | | | | | | | |
| Integration | | -.04 | .00 | | .22* | .05* | | .23* | .05* | | -.02 | .00 | | .34*** | .12*** |
| Final Model R ² | | | .38*** | | | .30*** | | | .05 | | | .00 | | | .12*** |
| Step1 | | | | | | | | | | | | | | | |
| Child Age | .62*** | .62*** | .38*** | .51*** | .50*** | .26*** | .04 | .02 | .00 | -.03 | -.04 | .00 | .00 | -.03 | .00 |
| Step2 | | | | | | | | | | | | | | | |
| Assimilation | | -.03 | .00 | | .10 | .01 | | .23* | .05* | | .12 | .01 | | .34*** | .11*** |
| Final Model R ² | | | .38*** | | | .27*** | | | .06 | | | .01 | | | .11*** |
| Step1 | | | | | | | | | | | | | | | |
| Child Age | .62*** | .61*** | .38*** | .51*** | .50*** | .26*** | .04 | .04 | .00 | -.03 | -.03 | .00 | .00 | .01 | .00 |
| Step2 | | | | | | | | | | | | | | | |
| Separation | | .13 | .02 | | .07 | .01 | | .09 | .01 | | -.13 | .02 | | -.16 | .03 |
| Final Model R ² | | | .40*** | | | .26*** | | | .01 | | | .02 | | | .03 |
| Step1 | | | | | | | | | | | | | | | |
| Child Age | .62*** | .62*** | .38*** | .51*** | .54*** | .26*** | .04 | .03 | .00 | -.03 | .01 | .00 | .00 | .00 | .00 |
| Step2 | | | | | | | | | | | | | | | |
| Marginalization | | -.01 | .00 | | -.15 | .02 | | .05 | .00 | | -.17 | .03 | | .01 | .00 |
| Final Model R ² | | | .38*** | | | .28*** | | | .00 | | | .03 | | | .00 |

N=54; Child Age=months old; raw scores were used for preschoolers' expressive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p<.10, **p<.05, ***p<.01 (all two-tailed).

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발견되었다. 즉 월령이 유아의 표현언어능력 원점수와 수용언어능력 원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규준이 있는 도구에서 원점수를 활용하여 초래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월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은 언어능력 검사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맞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월령의 준거변인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의 유아 자녀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어머니 통합 점수만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beta=.22, p<.10$). 유아 수용언어능력 점수 설명에 있어 통합 어머니 문화적응 점수는 유아 월령이 설명하는 설명량에 더해 5%의 설명 증분을 가져왔다($\Delta R^2=.05, p<.01, \text{ see Table 5}$).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의 사회능력과의 관계

이 연구의 또 다른 목표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 자녀의 사회능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의 사회능력 증가를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백경숙, 1996; 이지민, 김현수, 2015), 본 연구는 유아 월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인 간 관계를 보여주는 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도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작은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상관분석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을 .10으로 설정하였다.

유아 월령을 통제한 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 중 통합과 동화만이 유아의 주도성($r=.23, p<.10$; $r=.34, p<.05, \text{ respectively}$) 및 사교성($r=.23, p<.10$; $r=.33, p<.05, \text{ respectively}$)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 수치가 알려주듯, 이 두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은 유아의 주도성과 사교성 사회능력과 유사한 크기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과 동화 정도는 유아자녀의 협조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분리와 주변화 문화적응 수준은 유아 자녀의 세 사회능력 차원들 중 그 어느 것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지향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모국과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 모두에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유아자녀의 사회 능력 수준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이들 가정 유아자녀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 월령을 제1단계에,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 점수를 제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문화적응 차원들 간 낮은 양립 가능성을 고려해(Berry, 1994, 1997, 2001) 연구는 각 회귀식에 하나의 문화적응 차원만을 포함시키는 분석방식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표본 크기가 작은 관계로 회귀분석에서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도 .10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 유아의 월령은 유아의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사회능력 어느 차원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통합과 동화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은 유아의 협조성과 사교성의 예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들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은 유아의 주도성보다는 사교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데, 통합과 동화 문화적응 차원 점수는 유아 사교성 점수 변량의 12%($R^2=.12, p<.01$)와 11%($R^2=.11, p<.01$)를 설명한 반면 유아 주도성 점수 변량의 5%($R^2=.05, p<.10$)와 5%($R^2=.05, p<.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리와 주변화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은 유아 자녀의 세 사회능력 차원 어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see Table 5).

IV. 논의 및 제언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언어능력과 사회능력에서 일반 가정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이론과 선행연구는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주장들에 근거해, 다문화가정 유아자녀의 언어, 사회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내 결혼 이민자 어머니 특징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특징으로 문화적응에 집중하여 네 가지 구별되는 어머니 문화적응 전략 수준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능력과 사회능력

수준을 검토한 결과,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표현언어능력이 같은 연령군 유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시사된 바 있지만(박지윤, 2007;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황상심, 2008), 본 연구는 그 어려움의 수준이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더 큼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75.9%가 표현언어능력에서 연령 기준의 백분위 5th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최하위를 의미하는 백분위 0th도 55.6%나 되었다. 이 수준은 황상심(2008)이 다문화가정 유아들 중 언어발달 지체나 장애를 보이는 유아 비율이라 보고한 30%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68%가 표현언어능력에서 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정은희(2004)의 보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에서는 표현언어능력에서만만큼의 현저한 지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물론 백분위 50th 이하에 속하는 유아 비율(64.7%)이 백분위 50th 이상에 속하는 유아 비율(35.3%)보다 높고 백분위 평균이 36.26th($SD=32.55$)으로 같은 연령군 보통의 유아들의 수용언어능력 수준보다 1표준편차 정도 아래에 위치하여 한국어 수용언어능력에서의 약간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수준은 표현언어능력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문제가 수용언어보다 표현언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정은희(200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능력에 있어서는 본 연구는 이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사회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

다. 일반 가정 유아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아 두 가정 간 직접적 비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능력 수준은 정예리와 이숙희(2010) 연구에서 보고된 교사평정 다문화가정 유아(도시와 시골의 다문화가정 유아 모두를 포함한)의 사회능력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록 차이검증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능력이 일반가정 유아의 사회능력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발견되었으나(정예리, 이숙희, 2010), 정예리와 이숙희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능력이 기능적으로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 주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 언어능력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는 네 개의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들 중 통합만이 다문화가정 유아자녀의 수용언어능력과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과 모국 문화 모두를 균형적으로 수용하는 특징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에서 이러한 특징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수용언어능력이 발견되었다. 비록 그 설명량은 5%로 통계적으로 marginal한 수준에 있긴 하였으나,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요인의 확인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모국의 문화, 사람, 언어 모두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통합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결혼이주민 어머니는 다른 문화적응 전략(동화, 분리, 주변화)을 취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한국어회와 문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

고 두 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드러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일부 선행 연구가 시사하듯, 두 언어에 동등하게 노출된 아동은 한 언어에 더 많이 노출된 아동보다 초언어적 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이 더 높았다(Mattock, Polka, Rvachew, & Krehm, 2010). 이러한 측면은 통합 문화적응을 보이는 어머니가 유아자녀의 언어모델링 및 언어자극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유아자녀의 언어발달의 비계로서 더 잘 활약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이러한 특성은 회상(recall; 표현언어능력 측정에서 요구되는 능력)보다는 재인(recognition; 수용언어능력 측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요구하는 본 연구의 언어능력 측정 과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높은 통합 및 동화 문화적응 수준이 유아자녀의 사회 능력 중 주도성과 사교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선행 연구들은 통합과 동화 문화적응에 해당하는 일부 요소들이 유아자녀의 사회능력에 정적 영향을 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윤갑정과 고은경(2006)은 모국과 한국의 문화/언어 모두에 친숙하고 개방적인 어머니의 유아자녀들에서 사회관계를 포함한 원적응 수준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고, 박종인(2010)과 김시연(2010)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유아의 긍정-친사회적 능력과 또래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줌을 발견하였다. 통합이나 동화 문화적응 상태의 어머니는 분리나 주변화 적응 상태의 어머니보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더 좋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요구 사항이나 이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 더 민감하고 반응

적일 수 있다. 즉 유아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유리한 반응적 양육(Davidov & Grusec, 2006; Thompson & Meyer, 2007)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에서의 통합과 동화와 유아 사회능력 간의 정적 관련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본 연구는 통합과 동화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의 유아 사회능력에의 긍정적 영향은 주도성과 사교성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통합, 동화를 포함한 네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은 유아 자녀의 협조성과는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다. 주도성은 유아가 놀이를 할 때 먼저 제안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거나 잘 사귀는 정도를 나타낸다. 반면 협조성은 다른 유아들과 상호작용 중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협조하거나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주도성과 사교성은 협조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요하는 사회적 능력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 사람, 활동, 언어에의 적극적 수용과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통합과 동화 문화적응 어머니의 자녀는 한국인 또래들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접근하도록 양육되고 모델링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표현 언어 능력이 매우 지체된 수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상태를 통합과 동화, 특히 통합으로 가도록 촉진하는 개입이 유아자녀의 한국어 수용언어능력과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능력 발달에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통합, 혹은 동화로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략과 유아 언어능력과 사회능력 발달에 유리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들의 통합, 동화로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을 제안해 본다. 선행 연구는 어머니 통합 및 동화로의 문화적응 성취에 어머니 자신의 사회 지지망 강화와 확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현경, 2010). 특히 이주 어머니의 사회지지 체계는 남편으로부터 양육 협력을 얻어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박종인, 2010),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박종인, 2010), 다문화가정 이주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통합이나 동화 상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김현경, 2010). 또한 한국어 교육과 사회 지지망 확장으로 얻어진 어머니의 향상된 한국어 능력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촉진은 물론 아동이 실제적으로 배우고 모델링할 수 있는 언어 자극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Hart & Risley, 1995).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의 유아자녀와의 한국어 소통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Houwer(1999)는 이중 언어에 노출된 가정 아동들이 정규 학교에 들어간 후에야 두 언어의 균형적 발달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유를 Houwer(1999)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주류 언어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가정에서의 주류 언어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이러한 Houwer(1999)의 주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두 언어 모두를 빈번히 노출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혹은 부족한 한국어에 대한 노출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아동 언어발달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입 전략은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표현 언어 발달에서의 전반적 지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수용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행 연구는 이 같은 두 언어에의 동등하게 빈번한 노출과 활용 기회가 아동의 초언어적 인식(Mattock et al., 2010)이나 인지적 통제능력(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에 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언어발달 지연현상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특히 한국 어휘력과 읽기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이혜련, 이귀옥, 2005; 장유경 등, 2003) 그리고 어머니 통합 문화적응이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에 기초해 볼 때, 결혼 이주민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된 책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가정내 유아자녀와의 책읽기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우현경 등, 2009;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특히 이지연 등(2004)은 책 읽기 동안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피드백, 주의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등이 유아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발견을 고려해 이주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자녀와의 책읽기 활동의 교육은 상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운 기술을 역할연기를 통해 연습해 보는 기회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자녀의 언어, 사회능력 발달에 이로운 가족내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 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나 양육

행동에도 신경을 쓸 것을 제안한다. 연민아(2012)와 임진숙(2008)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이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과 사회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족내 언어 환경 조성에 있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율적이면서도 애정적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율·애정적 양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임진숙,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문화적응 촉진 프로그램은, 특히 유아자녀의 언어적, 사회적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문화적응 촉진 프로그램은 자율적, 애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훈련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임상적, 교육적 함의를 논의해 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어머니와 그 유아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수성으로 표본 크기가 작았고 표집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징이 있었다. 추후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사회 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들의 결혼이주 어머니의 문화적응이라는 특성에 집중하였다. 추후 연구는 어머니 문화적응이 자녀의 언어, 사회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거나 중재적 역할을 할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매개변인의 규명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자녀의 언어, 사회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로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중재변인의 규명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자녀의 언어, 사회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보호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지지는 앞서의 두 변인 간 관계를 중재할 만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문화적응과 자녀 언어, 사회 능력 발달 간 인과성 설정을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실험 설계나 중단 설계는 이러한 인과성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구효진, 박경란, 최진선 (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 연구. 특수교육연구, 44(3), 355-374.

김선희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유아의 언어능력과 교사-유아관계의 영향. 교육과학연구, 44(2), 47-67.

김시연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유아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희 (2007a).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 검사. 서울: 학지사.

_____ (2007b).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의 검사방법 타당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2(2), 125-138.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김현경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변형영유아교육연구,

4(2), 27-43.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생태체계 요인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윤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 미 이해력 검사 실시 안내서. 서울: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백경숙 (1996). 영유아의 중일제 보육시설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연민아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수경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 23-36.

윤갑정, 고은경 (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6), 1-14.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이지민, 김현수 (2015).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분

- 석.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0(3), 1-20.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이한솔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 이귀옥 (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05-216.
- 임진숙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경, 이근영, 박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정민자, 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의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 259-282.
- 정예리, 이숙희 (2010). 거주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힘의 비교-도시와 농촌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3, 79-108.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 33-52.
- 통계청 (2017). 2016년 혼인·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 황상심 (2008).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kerman-Ross, S., & Khanna, P. (1989). The relationship of high quality day care to middle-class 3-year-olds' languag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97-116.
- Baldwin, D. A. (2000).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uels knowledge acquis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40-45.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 193-197.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stress. In W. J. Lonner & R. S. Malpass (Eds.), *Psychology and culture* (pp. 211-215). Boston: Allyn & Bacon.
- _____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68.
- _____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5-58.
- Furrow, D., Nelson, K., & Benedict, H. (1979). Mothers' speech to children and syntactic development, some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Language*, 6, 423-442.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Houwer, A. D. (1999). Two or more languages in early childhood: Some general poin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Retrieved April 20, 2017,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5657399>.
- Kaplan, E., Goodglass, H., & Weintraub, S. (1983). *Boston naming test*. Philadelphia: Lea & Febiger.
- Mattock, K., Polka, L., Rvachew, S., & Krehm, M. (2010). The first steps in word learning are easier when the shoes fit: Comparing monolingual and bilingual infants. *Developmental Science*, 13, 229-243.
- McCartney, K. (1984). Effect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Thompson, R. A.,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Gross, J. J.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Van der Veer, R., & Valsiner, J. (1991). *Understanding Vygotsky: A quest for synthesis*. Oxford: Basil Blackwell.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 논문접수일 : 2017년 04월 27일
- 심사시작일 : 2017년 05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2일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cculturation and Preschooler'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Ji-Hoon Oh

(Eunha Childcare Center)

Hyun-Soo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cculturation and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immigrant mothers and their preschool aged children (3 to 6 years old), residing in Seoul and Gyung-gi areas. Maternal acculturation was measured using a mother's self-report measure; the preschooler's social abilities were measured using a teacher-rating measure; and the preschooler's expressive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were measured using individual language ability tests. Data from a total of 54 dyads of mother (mean age=33.46 years old, $SD=5.26$) and child (27 boys and 27 girls; mean age=52.54 months old, $SD=12.89$)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controlling for the child's age (months old)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entering the child's age in Step 1 and maternal acculturation in Step 2) were conducted. **Results:** The researchers found that integration is the maternal acculturation factor that positively affects receptive language abilities of preschool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are the maternal acculturation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 leadership and sociability of preschool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nclusions:** This study verified the importance of maternal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acculturation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maternal acculturation, preschooler, language abilities, social abilities*